

신안 올 천일염 다음달 28일 생산 개시

품질저하·가격하락 우려 평균기온 15도 이상 출하

신안군이 올해 천일염 생산 개시일을 다음달 28일로 지정했다. 군은 명품 천일염 생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생산 개시일과 함께 종료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평균 기온이 섭씨 15도보다 낮은 시기에 소금을 생산하면 발이 작고

염화나트륨 함량이 높아 품질저하와 가격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천일염은 바닷물, 온도, 바람, 햇볕 등 4가지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밤과 낮의 평균 기온 차가 섭씨 15도 이상이 돼야 품질이 좋다. 박우량 군수는 최근 “신안 천일염

을 프랑스 ‘케랑드’, 이탈리아 ‘코마치오’ 등과 함께 세계 3대 명품 천일염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생산 개시일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군은 생산 개시 전 생산자들과 함께 염전 주변 정화에도 나섰다.

신안군은 지난 2009년부터 천일염 생산시설인 창고와 바닥재 등 시설을 개선하고 염전 주변 폐기물을 치우는 등 친환경 염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매년 읍면을 순회하며 천일염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 생산자 의식변화와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천일염이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염전 주변 환경 정비와 위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며 “생산자들이 수시로 염전과 주변환경 정비에 나서 명품 천일염을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탐방로 만드는 장도습지

신안군은 흑산면 장도습지를 찾는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 1.7km의 습지 탐방로를 조성하고 습지홍보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국제 람사습지로 등록된 장도습지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군은 지난 2011년부터 28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 시립교향악단 등 정기공연 유료화

목포시는 18일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등 3개 단체 정기공연을 유료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개최되는 정기공연 관람시에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 시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감안해 공연관람료를 학생단체(5인 이상)는 1000원, 일반단체(10인 이상)는 3000원, 학생 개인은 3000원, 일반인(대학생 포함)은 5000원으로 정했다. 다만 국가공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어르

신은 감면된다. 티켓은 인터넷(티켓링크) 또는 현장판매를 병행한다. 한편 목포시립예술단은 일본·베트남·중국 공연을 비롯해 F1세계자동차경주대회, 세계민속음악페스티벌, 2012 여수세계엑스포, 김대중대통령서거 3주기 추모문화제 합동공연 등을 통해 많은 찬사와 호평을 받았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양과 기계화 시범단지 200ha 조성

무안군, 10억 들여

무안군은 18일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처음으로 양과 기계화 시범단지 200ha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이 기계화 영농에 나선 것은 갈수록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고령화로 인해 작업 효율이 갈수록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기계화 영농은 필수적이라는 게 군의 입장이다. 군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양과 파종에서 생산까지 양과정식기와

수확기 등으로 작업하면 최소 2~3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는 모종 수는 기계화의 경우 ha당 3만3000주를 심을 수 있으나 일반 관행 식재는 3만여주에 불과하다. ha당 생산비용은 수작업이 626만원, 기계화는 261만원으로 절반 이하다. 군은 올해 시범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면적을 1000ha 이상 늘릴 방침이다. 무안지역은 전남지역 양과 재배면적(7714ha)의 35%인 2734ha를 차지하는 대표적 주산지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2014 완도 해조류박람회 홈페이지 개통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홈페이지(http://www.wandoexpo.com)가 18일 개통됐다. 홈페이지에는 박람회 개요, 상징, 조직위원회 구성, 행사장 안내, 입장권 구매 등 박람회 정보가 담겼다. 페이지마다 QR(Quick Response) 마크와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아이콘을 집어넣어 더욱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또 스마트폰, 아이패드 대중화에 맞춰 소셜미디어(SNS)로 정보제공은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연계가 가능하다.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주제로 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2014년 4월 11일부터 한 달간 완도 해변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졸업작품전(19일)을 앞두고 목포대에 모여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목포대 평생학습학부 진도홍주 전문과정 학생들.

68세 늦깎이 대학생 아름다운 도전

평생 평안 보고 살아온 60대 후반의 농사꾼이 19일 목포대 진도홍주 전문과정 졸업작품전에 3년 6개월간 만든 작품을 내놓는다. 진도군은 18일 “19일 오후 진도군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목포대 평생학습학부 진도홍주 전문과정의 졸업 작품전시인 캡스톤디자인 발표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학생은 최고령자인 이승태(68)씨. 그는 진도 태생으로 농사를 짓다가 주위 추천을 받아 진도홍주 전문과정에 들어섰다. 이씨는 “그동안 공부하면서 뒤늦게나마 그 기쁨을 알게 돼 만족한다”며 “향후 무엇을 할 지는 좀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목포대 진도홍주 과정 이승태씨

검정쌀약주 등 졸업작품전 출품

이씨는 등 졸업예정자 들은 이번 작품전에서 진도홍주 외에도 3년 동안 지역특산품 등으로 연구한 결과물인 마카 가공제품, 검정쌀 약주, 메밀차, 검정찰보리식빵, 검정쌀해조고추장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동진 군수는 “미래사회는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맞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지게 된다”며 “평생교육을 통해 배운 과정이 미래사회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삶의 풍요와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전북

순창 강천산 순환형 탐방로 개설 연 200만명 관광객 유치 청신호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강천산에 순환형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최근 완료됐다. 이 사업은 팔덕면 장안마을 뒤에서부터 강천호 부근까지 연결된 4.8km 가량 구간 양쪽에 가로수형 단풍나무와 개나리 등 화초류를 식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강천산에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강천산은 완만한 등산로와 맨발 산책로 조성으로 등반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전국적인 휴양 명소로 꼽히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가로수형 단풍나무와 군데군데 흉단풍과 철쭉을 심은

것은 물론 데크 전망대와 쉼터를 새롭게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5~10년이 지나면 지금 심어놓은 터널식단풍이 오색찬란하게 물들어 강천산 단풍의 묘미를 한층 더해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강천산에서 산악자전거나 걷기·등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도 동부권개발사업비 15억여원을 투자해 강천호 부근에서 육호봉까지 연결되지 않은 산책로 개설과 노후화된 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전망대, 등산로 안전시설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새만금관할권 싸움에 발 묶인 비안도

지자체 갈등에 가력도 선착장 승인 지연... 사선타고 위험 운항

군산시 비안도 주민들이 군산·김제·부안 등 자치단체 간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싸움으로 수년간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비응항에서 뱃길로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비안도에는 현재 199가구 465명이 살고 있으며, 군산항~연도~선유도를 거쳐 비안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있었지만 지난 2002년 1월 중단됐다. 방조제까지 6km에 불과한 곳을 놔두고 43km를 돌아가야 하는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 탓에 이용객이 갈수록 줄었기 때문이다. 방조제가 완공되고 1호 방조제 끝 가력도에 선착장이 들어서자 주민들은 뱃길 복원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가력도 선착장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여객선 운항에 필요한 도선장 사용승낙서를 내주지 않아 뱃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주민 불평은 부안 어민들의 반대와 새만금 행정구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 간 갈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여의도 면적 140배의 새만금간척지(4만100ha)의 관리와 행정구역 획정을 놓고 유리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수년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군산시는 관례대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제시와 부안군은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만큼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 경계기준이 필요하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비안도 박상법(65) 이장은 “12년째 여객선 운항이 끊긴 섬은 전국에서 비안도가 유일하다”며 “농식품부는 정치권 눈치만 보지 말고 즉각 도선장 사용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선착장 사용 승인이 늦어지자 비안도 주민들은 14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가력선착장 점사용 승인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단신

전주시, 이주여성 학력취득사업 추진

전주시가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진출을 돕고자 학력취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18일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력이 낮아 편향은 일 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고교 과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부터 검정고시 전문학원

에 이주여성반을 개설, 위탁 운영한다. 이 과정은 10개월간 고교 입학자 격취득반(졸업반)과 고교졸업학력인정반(고졸반)이다. 검정고시 시험과목은 중졸반 6개 과목, 고졸반 8개 과목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남원시 열려

“2013 한중 청소년 문화관광 교류 행사”가 지난 17일부터 1박2일간 남원에서 열렸다. 이번 교류행사를 위해 중국 강소성, 남경 등지 중국문화가 협회 소속 200여명의 청소년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중국문화가 협회는 중국 전역의 문예인들이 주축이 된 사회단체로 지난 2007년에 설립돼 중국 청소년, 노년 문화예술제, 국제 문화예술교류활동 등 매년 해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들은 광화문, 춘향테마파크 등 주요관광지를 방문하고, 남원춘향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동공연을 가졌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중국 청소년과 노인단체 문화관광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은과관광지·금강철새조망대 깨끗하게

군산시 ‘클린 운동’ 나서

군산시가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쾌적하고 질 높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 클린 군산 운동’에 나섰다. 시는 올해 전체의 비경을 지닌 선유도와 고군산군도, 세계최장의 새만금 방조제, 비응항 등 자연자원은 물론 근대역사박물관, 은과관광지, 금강철새조망대 등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정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광지, 다중집합장소 및 취약지를 선정해 연중 매달 1차례씩 정기적으로 기업체, 기관, 단체, 주민 등이 참여해 청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강하구연 및 새만금 방조제 일대의 해상부유 쓰레기는 농어촌공사 및 관할 읍면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 시는 환경정비비를 구성해 금강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 전국배드민턴 대회, 새만금 축제, 풍당보리 축제, 세계철새 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자기 주변에 대한 정결 활동, 불법투기자의 감시 및 신고 생활화, 쓰레기 종량제 준수 등 시민의 청결 실천의식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영광의 합격자 33명

(재)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센터장 정도연)가 전통장류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순창전통장류제조사 2급 자격시험에 33명이 합격했다. 순창전통장류제조사 양성교육 수료생 4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험의 최연소 합격생은 박초롱(18)양, 최고령 합격자는 윤정옥(65)씨였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고창, 국·지방도 확포장 374억 투입

고창군은 관내 국·지방도 확포장 공사 5개 구간(총연장 40.95km)에 올해 374억원을 투입한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성송~고창 간 국도23호선은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67억원을 투입, 토지보상과 구조물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또 2014년 완공예정인 영광~대산

간 국도23호선은 올해 88억원, 188억원이 투입되는 심원 우회도로 국도22호선 구간(4.27km) 사업 추진 여부는 연내 결정될 예정이다.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15호선은 2개 구간으로 아산~무장 구간은 6.2km에 676억원이 투자된다. /고창=김철수기자 knews@

순창, 드림스타트 아동 미술관 체험

상대적으로 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미술관에 도착한 학생들은 유망한 미술작품 관람과 함께 이흥재 관장으로 부터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특강을 들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농촌지역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